

땅의 것을 통하여 하늘을 본다.



제5과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으로
구속의 진행을 가르치심(2)

시작하는 말: 우리는 지난 과에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노정이 어떻게 인류의 구속의 사업을 가리키는지 그 일부를 연구하였다. 오늘은 그 다음 부분, 시내산 밑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율법을 주시는 데서부터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까지 연구하며 그 사건이 인류 구속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며 성취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과 관계되는 것을 연구하려고 한다. 이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곧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할 것을 명백히 가르쳐 주고 있다.

1. 이스라엘이 반석에서 물을 얻고 난 후에 아말렉이 그들을 쳤으며, 오직 모세의 들린 손에 의하여서만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다.

[출17:8-16]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9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10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11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12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13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1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15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닛시라 하고 16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출17:16] 가로되 1)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

- 손을 들었다는 말씀을 모세의 손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들렸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번역한 성경이 있다. 본문이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번역이 나온 것이다. 그러나 출17장에 나타난 아말렉의 행태를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보좌를 치려고 손을 든 루시퍼의 정신을 대표하고 있음을 볼 수 있

1) 아말렉이 여호와의 보좌를 치려고 손을 들었으니

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것이며, 사울이 이 일을 하지 않으므로 그가 사단의 편에 서게 된 사실을 사무엘서는 지적하고 있다(삼상15:13-23). 사울이 망하게 된 이유를 이 사건으로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신25:17-19]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18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19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 아말렉인은 이스라엘 후진에 노약자를 기습하여 공격하였다. 사단도 우리가 믿음이 약하여질 때 공격한다. 우리는 십자가에 들린 그리스도의 손을 바라보면서 약할 때에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

2. 이 사건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성령 강림으로 능력 있게 일할 때 사단이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것을 뜻하고 있다. 교인들 중에 연약한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이다.

[마3:15-17]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16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눅3:21,22]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22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마4:1-11]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2 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3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4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5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7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8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9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10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11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아와서 수종드니라.

[행4:1-32] 오순절 후에 교회가 큰 핍박을 만난 사실을 기록한 내용이다.

[8:1-3]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2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3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딤후3:12]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요16:33]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3.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백성의 지도자를 세우고 조직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조직되어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가리킨다.

[출18:18-26] 그대와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함이라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19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20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21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재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이를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22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23 그대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24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25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재덕이 겸전한 자를 빼서 그들로 백성의 두목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으매 26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베풀고 쉬운 일은 자단하더라.

[행6:3-6]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4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5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콜라를 택하여 6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엡4:11,12]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12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한 사람만으로는 교회가 될 수 없다. 몸은 많은 지체가

있다.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지체들이다. 몸은 지극히 정교한 조직체이며 유기체이다. 교회가 바로 그런 유기체로서의 조직이다. 동일한 목적을 향하여 통일된 사상과 통일된 행동으로 협력하여 활동한다.

4. **이일 후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언약의 내용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며, 언약의 조건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인데,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진심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정신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시며 그들이 실수했을 때 성소를 통하여 속죄로 항상 정결하게 하실 것을 보증하셨다.**

[출19:1-6]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 삼 월 곧 그 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2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3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4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5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출19:5]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시78:38]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시며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분을 다 발하지 아니하셨으니.

[히9:1-7,13]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2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3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4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쓴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짝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5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말이 말할 수 없노라 6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7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일 년 일 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13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5.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에 들어가는 것을 표상하는데 그 내용과 조건은 다 동일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히8:8-10]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불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9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너희와 세운 언약과 같

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 보지 아니하였노라 10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니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히10:16] 주께서 가라사대 그 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벧전2:9]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계1:5,6]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일2:1,2]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씌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2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빌2:13,14]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4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요13:10]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졌다는 것은 그들이 얻은 생명 곧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 그 생명의 생태(生態)가 하나님의 법을 시행하도록 되었다는 말이다. 그럴 지라도 그들이 사는 세상이 죄의 세상이기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고 상하는 일이 날마다 있을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것을 항상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6. 이 때에 율법을 주신 것은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 구원을 얻은 증거로 주신 것이며 구원 얻은 자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능력이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출20:1,2]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2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실에 의하여 계명을 선포함.

[벧후2:21]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그들이 올바른 길을 알았다가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올바른 길을 알지 못했던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공동번역)

[롬8:6-8]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8 욕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7.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심판과 부활과 재림을 표상하고 있다.

[수3:1-17]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기록한 장이다.

[수3:5]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 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수3:14-17]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15 (요단이 모퉁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멘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멘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17 여호와와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마3:13-15] 이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 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대 14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15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약2:10-12]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11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12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살후1:7-9]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갓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8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9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 홍해를 건넌 것이 침례를 표상하는 것인데 비하여 요단강을 언약궤를 앞 세워 물에 들어간 후에 모든 백성이 그 언약궤 앞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넌 것은 율법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홍해는 애굽에 대하여 죽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스라엘에 애굽에 대하여 죽고 애굽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죽는 것을 나타내지만 요단강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건넌 강이다. 이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이 그들의 일생을 주장해 왔다는 것을 증거하는 심판이 되는 것이다.

8. 이스라엘이 비록 애굽에서 구원 얻어 광야에 나왔을지라도 받은 거룩한 명령을 순종치 않았을 때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였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교회생활을

철저한 순종으로 살아야 하며 그렇지 못할 때에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히3:16-19] 듣고 격노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좇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17 또 하나님이 사십 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18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시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19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히4:11]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민32:11-13]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이십 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녕히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12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하시고 13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 그들로 사십 년 동안 광야에 유리하게 하신 고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필경은 다 소멸하였느니라.

[히5:8,9]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롬16:26,27]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좇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좇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27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 순종 문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그 지체인 성도들의 관계로 이해할 때 바르게 이해하게 된다. 순종은 성도가 하지만, 그것은 순종하도록 명령하신 하나님이 순종의 주체이시다. 만일 순종할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하셔야 하는 것이다. 이런 원리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요14:10]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것이 순종의 실상이다. 순종 잘 하였다고 자신이 무엇을 했다는 사상은 성경이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사상이다.

9. 가나안 땅은 신천 신지를 표상한다.

[창12:1-7]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2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3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4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좇아갔

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칠십오 세였더라 5 아브람이 그 아내 사래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6 아브람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겔 땅 모레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 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7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 곳에 단을 쌓고.

[출3:8]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러 하노라.

[시106:24]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히11:13-16]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14 이 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15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길을 불평 없이 따라가면 영원한 본향에 이르게 된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예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냥 따랐다. 결과로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기 가셨기 때문이다. 순종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10. 가나안 족속을 멸하는 것은 악과 그 세력을 완전히 멸하는 것을 표상하고 그로부터 세상에 재난이 다시 없을 것을 표상한다.

[창15:18-21]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19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몬 족속과 20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21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신7:1,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 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신20:17]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하신 대로 하라.

[말4:1-3]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개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2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3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시37:10,11]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 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
로다11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도다.

[나1:9] 너희가 여호와를 대하여 무엇을 피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 전쟁은 상대가 싸우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응수하게 될 때 일어난다. 만일 전쟁할 생각이 전혀 없도록 상대를 굴복시킨다면 전쟁을 다시 없을 것이다. 가나안에 사는 족속들을 진멸하라는 것은 영원한 평화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이다. 또 생명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하는 것은 그들이 영원한 사망의 존재됨을 강력히 주장하고 증명하는 것이다. 사랑의 하나님은 생명이 없는 그들을 눈물로 장례 하신다. 살아 있다가 생명이 없어진 존재를 장례 하는 것은 사랑의 실천이다. 진멸과 불 못은 바로 영원한 장례식을 지적하는 표현들일 뿐이다.

“링컨은 남부와의 평화 협상을 거부했다. 그는 남부 정부를 반란 세력으로 규정했다. 그의 권력 의지는 그 원칙을 고수하게 했다. 그는 완벽한 전쟁 승리만이 정의로운 평화를 재생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의 치열한 전쟁관은 전선에서 펼쳐진다. 초토화 작전이다. 링컨의 기준으론 한반도 평화는 위선적이다. 북한 핵무기와 기묘한 동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전쟁 반대자를 영장 없이 투옥했다. 그것은 대통령 권력 남용과 독재 논쟁을 일으켰다.”(인터넷 중앙일보 -조인스 뉴스- 2009년 2월 12일 목, 박보균 대기자. 링컨 이야기 중에서).

마치는 말: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하여 가르치려는 것이 지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영원한 구원으로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여 들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확실히 가르쳐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복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를 위하여 대리경험을 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록하게 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자.